FOCUS

한국오리협회 함평군지부-오리자조금

# 2023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4년 만에 함평나비대축제 개최…15만 인파 북적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C, 칼슘 등 오리고기 우수성 알려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를 주제로 4년만에 열린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5월 7일 함평 나비축제에서 열린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에서 관계자들이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_ 노컷TV 영상캡처)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지난 5월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8일부터 함평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축제에는 15만명이 방문, 봄 대표 축제의 귀환을 알렸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축제는 20종 25만 마리 나비와 함께 야외 나비 날리기 체험, 생태습지 미꾸라지 잡기, 보리·완두콩 그스름 체험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호평받았다.

한국오리협회 함평군지부(지부장 최재석)는 관람객들에게 오리고기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하고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오리고기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한 축산 단체 중에서도 높은 관람객이 참여하여 높은 인기를 누렸다.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전영옥 지회장)도 참여해 오리고기를 홍보하는데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도지회 전영옥 지회장은 "전남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함평나비축제 행사장에서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밖에 축종별 지역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다 내실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한양계협회 함평산란계지부는 축산물 시식회와 판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계란 6만개를 제공했고, 낙농육우협회 함평군지부는 우유 생산과정과 유제품 시음, 젖소 캐릭터 모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함평천지한우(5월 5일), 한돈(5월 6일) 무료 시식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우리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소비홍보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리고기의 칼로리는 100g당 134kcal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근 손실이 오기 쉬운 봄철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오리고기는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C, E1, B2, 칼슘, 철, 인, 칼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있어 환절기 건강을 위한 몸의 활력을 넣어주며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이날 시식행사에 참가한 방문객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오리고기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오리고기를 직접 사서 먹겠다며 매년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코로나19 이후 4년여 만에 예전 축제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궂은 날씨에도 함평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